

참사람 36.5°C

Vol. 32 | 2023년 9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CONTENTS 목차

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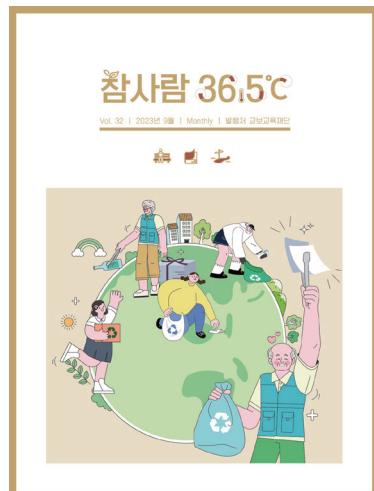
2023년 9월 1일 금요일
Monthly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Cover Story

9월 '참사람을 말하다'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폐지 수거 어르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이 국가의 자원순환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이제부터 어르신들을 향해 '폐지 줍는 노인' 대신
'자원재생활동가'라고 이름붙여보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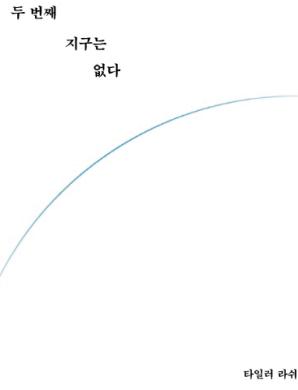
04

참사람을 말하다

'폐지 수거 노인' 대신
'자원재생활동가' 어떨까요?글 _ 기우진
려블리페이퍼 대표

08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어쩌다 어른' 말고
'진짜 어른'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이효선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읽고
1.75의 어리석음:
그린슈머가 될 테야!
글 _ 정선중학교 최서연

16

재단소식

가족애를 나누다 :
2023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여름캠프 현장 스케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어떤 책?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13

세대공감 토닥토닥

자꾸만 실패하는 계획...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글 _ 장혜민
서울시립청소년 미디어센터 상담사

19

재단소식

2023년 제7회 교보교육재단
「책갈피 : 책 속에서 나를 찾다」
청소년 독서편지 공모전

‘폐지 수거 노인’ 대신 ‘자원재생활동가’ 어떨까요?



기우진(러블리페이퍼 대표)

친환경·친고령 사회적 기업 ‘러블리 페이퍼’를 통해 폐지수집어르신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분은 ‘빈곤’이라는 어휘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부족한 옷 가지와 남루한 환경, 짙주림 등. 하지만 빈곤이라는 키워드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복지현실을 이야기하기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빈곤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짙주림이 일상인 세계 곳곳의 국가들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를 대체할 가장 적절한 단어가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존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무관심을 무기 삼아 소외시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암묵적 배제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은 다름 아닌 ‘폐지수거노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폐지 수거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나라는 없을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고, 제가 답을 찾기 위해 지속 중인 노력과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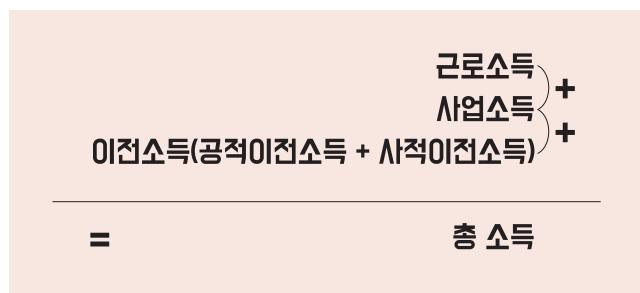
폐지수거어르신들의 현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18년 발표한 폐지수거어르신들의 첫 공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이 약 6만 6천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는 약 2천 8백여 명이 활동하는데 80% 이상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폐지를 수거한다고 응답했고, 75% 이상이 만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으로 조사되었지요. 폐지가격은 현재 1kg에 오십 원 정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 100kg을 모으면 약 오천 원을 수입으로 가져가는 수준입니다. ‘폐지수거노인과 GPS’라는 연구보고서(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이들은 무려 50~60kg 나가는 손수레

에 100kg이상의 폐지를 싣고 1일 평균 11시간 20분, 13km를 이동하며 노동을 한다고요. 어르신들은 대부분 혼자 활동하는데 그에 따른 육체적, 정서적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폐지를 수거하는 이들의 국제 네트워크 조직 'Global Alliance of Waste Picker'에 따르면 전 세계 36개국에 약 4백만 명 정도의 재활용품수거인들이 활동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어르신 수는 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폐지수거노인의 소득구조

일반적으로 노인이 되면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근로활동을 하면 근로소득이 발생 됩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근무형태를 살폈을 때 사업소득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한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이 있는데 이를 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법 제정으로 88년부터 기본복지가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1월 기초노령연금을 시행, 개정을 거쳐 14년 7월부터 기초연금 형태가 되었지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은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은 흔히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노년기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경우 소득구조를 예시로 들어보자면 근로소득(월 28만원) + 사업소득(20만원) + 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25만원) + 사적이전소득(15만원)) = 88만 원 가량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폐지를 수거하는 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관련 조사나 통계도 전무합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폐지 수거 어르신 중 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사실만 추측할 수 있지요. 대부분 월 소

득 90만 원을 밑도는 상황에서, 통제 가능한 소득구조는 사업소득으로 폐지를 수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내서 폐지를 더 많이 수거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높은 소득을 바라며 폐지를 수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생활비를 밑도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여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폐지수거활동

안전은 우리사회에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폐지수거노인의 안전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활동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낙상으로 인한 타박, 골절, 찰과상 등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새벽과 밤 시간대에 주로 일어납니다. 과속하는 차량도 문제가 있지만 차도로 손수레를 끌고 역주행하는 등 매우 위험한 운반활동이 원인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야광(반사)안전조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일몰 후 폐지를 수거하는 활동은 그 자체에 위험성을 갖고 있어 꾸준한 관리와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하며, 캠페인을 통해 상업 및 주거시설 등이 재활용품을 주간에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폐지 적재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민원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악취와 벌레 등 비위생적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지요. 화재위험성도 높습니다. 가연성이 높은 자재들이 적재되어 있어 사소한 담뱃불도 큰 화재로 연결될 수 있지요. 이러한 문제상황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며, 행정적으로는 공동의 적재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서적 결핍

노인기에 겪는 결핍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건강, 경제력, 관계상실 등이 있지요. 폐지수거노인은 이러한 여러 결핍 중에서도 특히 정서적 결핍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을 잊었음에도 힘든 수거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깊은 좌절감을 안겨 줍니다. 또한 주변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상실된 경우가 많으며 그 영향이 주변에도 미쳐 이웃들과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매우 낮아 '쓰레기를 주워 생활 하는 사람' 정도로 자아를 인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노년의 행복감은 찾아볼 수 없으

며 외롭고 힘들고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에 맞는 상담과 치유가 필요하며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평하지 않는 그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각지대라는 용어는 ‘존재하지만 배제된 어떤 것’으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폭염일수가 매년 증가하는 기후이상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요즘, 거리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이들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폐지수거어르신들은 인지능력, 신체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폭염 속에서 야외 활동을 지속합니다. 사실 집 안에 있어도 더위와 싸워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어르신께 여쭤보니 “아래도 덥고 저래도 더우니 나와서 한다.”고 얘기 하더군요. 더위를 편히 피할 곳이 없는 환경이 이들을 더 거리로 내몰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건을 물에 적시어 목에 두르고, 두꺼운 토시를 양팔에 착용하고, 얼굴을 간신히 가려줄 헛빛가리개 모자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시원한 음료라도 드리면 그렇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깁니다. 어르신들은 세월을 그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한 것 같습니다. 더위에 따른 낮은 폐지가격, 현재의 자신의 삶과 사회 구조에 어떤 불만도, 불평도 없습니다.

사랑을 담은 종이

2013년, 평범한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문제를 비즈니스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새로운 방식에 매료되어 주변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었지요. 이때 눈에 들어온 이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수거하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물론 NGO 단체 등에서도 폐지 수거 어르신을 위한 활동 등이 전무했습니다. 이 문제를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해 보겠다는 마음가짐과 함께 다소 무모한 도전이 시작되었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종이나눔운동본부를 창립, 주변에서 버려지는 폐지 등을 기부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자원업체(고물상)에 판매하여 기부금으로 환원한 뒤 폐지수거어르신의 생활 및 안전에 필



요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최는 다름 아닌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저의 제자들을 비롯해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썼는데, 미래세대인 이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깨닫고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는 폐지수거 어르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모델입니다. 2016년 대학생 5명과 함께 당시 재직 중인 대안학교의 빈 교실에서 시작한 3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 그리고 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러블리 페이퍼에서는 폐박스를 1kg 당 3백 원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업체의 폐지 평균 매입가격은 1kg에 50원입니다. 대략 6배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셈입니다. 깨끗하고 판판한 폐박스만 고가로 매입, 일정한 크기로 재단 후 압축해서 형겼으로 덧씌우지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제작과정이지만 꽤 근사한 업사이클링 캔버스가 완성됩니다. 이후 저희와 재능기부협약 체결한 전국의 약 350여 명 작가들과 함께 예술작품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정기구독회원들의 정기구매로 이어지며 그 수익으로 다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전, 여가를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사이클 공정은 온전히 러블리페이퍼에서 고용된 6명의 어르신들께서 전담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작품이 잘 팔릴수록, 캔버스가 많이 필요할수록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폐지수거노인’에서
‘노인’을 지우고
‘폐지수거활동’에 집중해본다면,

이는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친환경 활동이 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었지요.

최근에는 새로운 업사이클링 과정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학교, 기업, 병원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버려지는 종이 쌀 포대와 호텔에서 버려지는 폐 린넨을 재료로 세계최초 이자 국내 유일의 종이가죽원단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도 완료했습니다. 이 종이가죽 원단은 에코백, 노트북 파우치, 듯 자리 등 다양한 상품 제작이 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단 제조 인력이 모두 어르신들이라는 점이지요. 현재는 종이가죽 원단 자체를 소재로 판매하는 소재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러블리페이퍼는 이처럼 경제적 모델을 통해 어르신들을 직접 고용하고 폐박스를 고가로 구매하여 어려운 노인 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는 전세계 36개국에서 동일한 업을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인들의 생존과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멋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자원재생활동가

‘폐지수거노인’에서 ‘노인’을 지우고 ‘폐지수거활동’에 집중해본다면, 이는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친환경 활동이 됩니다. 즉 이

들이 노인이기에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펼치는 활동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여 다시 그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자원재활용율이 2위입니다. 폐지자원은 70% 이상을 회수하면서 독보적인 자원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지요. 폐지수거어르신들은 상업시설과 다세대주택가에서 발생하는 폐지 등을 주로 수집하는데 이 양이 연간 전체 폐지회수량의 20%나 된다고 합니다. 이 20%라는 수치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환원한다면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폐지수거활동을 단순히 그분들의 생계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활동을 정량화하지 못한 시혜적 관점에 불과하지요. 특히, 이분들의 폐지 수거 형태를 보면 무동력 이동수단(손수레, 끌차 등)을 통해 폐지를 운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절감되는 탄소배출을 생각해본다면 이보다 더 친환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르신들 대신 지자체가 민간위탁한 자원업체에서 경유를 이용하는 운반 차량으로 수집한다면? 그 탄소배출량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의 대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요.

이제 폐지수거활동은 과거 넴마주이의 관점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현대적 환경운동으로 재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데 플로깅이란 활동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요.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전 이 활동이 어르신들의 활동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어르신들께서는 플로깅하는 분들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자주, 더 전문적으로 수거하고 있다는 것지요. 하지만, 플로깅은 친환경 활동이고 폐지수거활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바로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동정의 관점이 아닌 공감의 관점으로 어르신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폐지수거노인의 삶과 우리 사회의 기여도를 부디 조금만 공감 어린 시각으로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굽곡진 현대사를 온몸으로 버티며 현재에 이르신 어르신들에게 빛진 마음으로, 그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어쩌다 어른’ 말고 ‘진짜 어른’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이효선**

‘어쩌다 어른’

모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의 제목이다. 정말 그랬다. 나는 어쩌다가 어른이 되어버린 것일까? 어쩌다가 어른 같은 것을 하고 있을까? 나는 거의 늘 게으르며 나의 이익을 위해 은근 슬쩍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자기 성장을 추구하다가도 금방 싫증내며 주저앉아 있다. 미성숙함이 가득한 인격체인데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어른이 되어있었다. 언제나 ‘진짜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나처럼 어쩌다 어른이 된 어른 말고 삶 자체에서 참사람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어른이 가까이 있기를 소원했다. 그 어른 옆에 있다 보면 그 분의 향기가 나에게도 조금씩 물들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2011년 성남의 한 대안학교에서 신병준 교장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께서는 늘 인자하고 따스한 표정이셨지만 사람을 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는 언제나 확신이 서려있었다. 선생님은 말 못하시는 훌어머님 밑에서 어렵게 자라셨다. 그러나 학

비를 내지 못해서 33번이나 학교에서 쫓겨나면서도,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면서도 선생님의 마음에는 ‘좋은 교사’가 되리라는 꿈이 살아있었다. 좋은 교사가 되어 나처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품어주겠다는 그 소망으로 고된 하루를 버텨내셨다. 그리고 그 꿈은 결실을 맺었다.

선생님께서는 도덕과 교사가 되어 진도, 전주 등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늘 제자들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셨다.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온 제자를 집에 데려가 씻기고 먹이셨다.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는 교사인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이라며 먼저 벌을 받고 매를 맞으셨다. 누구 하나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일은 없으셨다. 거짓된 것이라면 1 원도 소유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20년이 넘게 공교육에서 제자들을 만나다가 새롭게 세워지는 대안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청빙을 받아 오시게 되었다. 선생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던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시고 작은 전셋집 하나 얻을 돈만 가지고 성남으로 오셨다.



그 대안 중학교가 세워지고 몇 년 후, 나는 그곳의 교사로 가게 되어 교장 선생님을 드디어 뵙게 되었다. 학교에 첫 출근을 하여 복도로 들어섰을 때 “어머나!”하며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었다. 교장 선생님께서 허리를 굽하신 채로 복도를 청소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송구스러워진 나는 “제가 할게요.”하며 빗자루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아닙니다. 선생님은 교실로 가서 아이들을 맞으셔야죠.”하시며 계속 청소를 하셨다.

어찌할 바를 몰라 서 있던 나는 그 말씀에 비척비척 걸음을 옮겼다. 그 날 이후로 계속이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출근하셔서 복도를 청소하시거나 걸레질을 하시거나 계단의 휴지를 치우셨다.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사들에게도 늘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 ‘내가 만나고 싶었던 진짜 어른이 이 분일까?’ 하는 생각을 교장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하곤 했다.

선생님께서 용인 지역에 새로운 대안 학교를 개척한다고 하셨을 때 나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진짜 어른 곁에서 배우며 나도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교사들이었지만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진심만큼은 부자였던 일곱 명의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준비하여 세우게 되었다. 새로운 학교는 ‘소명학교’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개교를 했고 이제 11년째를 맞이한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장 선생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학교의 입구, 복도, 계단을 청소하시는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침 일찍 학교 현관에 박스를 펼쳐 놓아두셔서 제자와 교사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다. 학교 급식을 나누는 일에 손이 부족한 것을 아신 후부터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떠 주신다. 한 두 번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할 때면 늘 그렇게 하신다. 급식실의 사정을 아신 후에는 마늘 까기, 감자 깍기 등의 일도 ‘어허허’하고 웃으며 즐겁게 하신다. 매일 점심에 앞치마를 두르고 학생들에게



국을 떠 주는 교장 선생님이 한국에 몇 분이나 계실까? 더러운 곳이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청소하시며 무거운 것을 옮겨야 할 때는 본인이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을 드시는 교장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소명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은 가르침을 받는다. 삶으로 보여주시는 강력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을 뵈면서 퇴임 후에는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랐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셨다. 용인에 있는 소명학교에 든든한 후임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난 후, 오랜 소망이었던 안산·시흥 지역의 대안 학교 개척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대안 학교가 거의 없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안산·시흥 지역에 좋은 학교를 세워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선생님께서는 다시 한 번, 힘들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걷고 계신다.

‘꿈꾸는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의 별칭이다. 우리는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좀 더 예쁘고 멋져졌으면 좋겠어.’,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길 바라.’ 등의 꿈을 꾼다. 이 꿈들은 그 방향이나 또는 나의 가족을 향해 있다. 내가 만든 작은 울타리 안에서 아옹다옹 꿈꾸다가 노력해보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론 꿈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데 선생님의 꿈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다. 나와 내 가족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 땅의 교육이 참교육으로 바로 서기를, 고통 받으며 신음하는 아이들이 없기를, 교사와 학부모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셨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더 내려놓는 희생을 통해 그 꿈이 현실로 피어나도록 하셨다.

교장 선생님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낼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약 일 년 반의 시간이 지나면 선생님은 개척을 위해 떠나시기 때문이다. 선생님이 머무셨던 이 곳 용인에 ‘진짜 어른들’이 많이 생겨나길 소망한다.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나도 교장 선생님을 닮아 ‘진짜 어른’으로 매일 더 자라나길 소원한다. 꿈꾸는 선생님의 꿈이 세대를 거쳐 이어지도록 말이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읽고 1.75의 어리석음: 그린슈머가 될 테야!

정선중학교 **최서연**

1.75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신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타일러 아저씨께

타일러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비정상회담이랑 토파원 25시를 즐겨보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저에게 다소 낯선 단어들이 여기저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탄소제로,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업사이클링, 그린워싱, 플로깅, 공유경제, 환경난민, ESG, 지속가능발전, 2°C 기후 보호난간 등이 그것입니다. 어려운 낱말이기도 하면서 지속적인 호기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환경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라는 학교 수행평가를 기회로 타일러 아저씨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크게 별일은 아닌데 저도 모르게 살포시 뿌듯해진 제 마음의 성장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편지를 써봅니다.

어딜 가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이고 덕분에 환경에 대한 제 관심이 증폭되었던 시기와 맞물려 기왕이면 빛이 날 정도로

남다른 타일러 아저씨의 도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명언처럼 다가온 글귀가 곳곳에 있었죠.

「지구가 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1이라면 인간은 매년 1.75의 지구를 사용한다.」

정확한 수치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에 돌직구를 강타한 이 문구가, 저에게는 “정신 차려!” 하는 소리처럼 들렸죠. 뒤늦었지만 지구의 한도 1을 넘어서는 1.75의 어리석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구는 하나뿐이고,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했고,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타일러 아저씨 덕분입니다.

타일러 아저씨의 가르침처럼 전 세계는 지금 이상고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초여름 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은 곳들도 있지요. 지구온도 2도의 변화는 실로 크나큰 자연재해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평균 온도가 6도까지 오를 땐 생물의 95%가 멸종한다고 하니 지구온도 2도 위력을 짐작할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사계절이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태 에어컨 없이 살던 우리 집도 에어컨을 들여놓게 된 것을 보면 기온의 상승을 정말 실감합니다. 기온 상승이 마치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지고 빨라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우리 누구나 환경난민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옮겼다."**



타일러 아저씨의 글 속에서 만난 환경난민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생소했지만 이내 그 의미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경제 성장과 물질의 풍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일삼다 보니 환경이 파괴되고 급기야 ‘환경난민’까지 생기는 지경에 이른 것 아닐까요? 타일러 아저씨, 저는 부디 4계절이 있는 변함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연이 아프면 사람도 아픕니다. 우리는 생태계의 일원일 뿐이기에 부서진 균형 속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지구에서 사라질 수 있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후 현실을 술에 취해 위험하게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비유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게다가 ‘기후악당’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참 씁쓸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며 과거에서 배우고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온 세상이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를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할 때라는 걸 느낍니다. 오를 때로 한껏 치달은 열에 괴로워하는 지구를 위해 해열제 같은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작지만 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그린슈마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일러 아저씨, 저는 말이죠. “꿈이 뭐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면 항상 “선생님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타일러 아저씨는 “내 꿈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

는 사람이 있다더니 바로 타일러 아저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일러 아저씨처럼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행동이 시작됨을 명심하려고 합니다. 이 지구촌은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일 텐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실천이 꼭 필요하겠지요? 늦을수록 더 악화가 될 뿐일 테니 최대한 빨리, 단호하게 실천에 동행하겠습니다. 사소한 생각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지구는 없다」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완벽할 수는 없다. 완벽한 것도 필요 없다. 다만 깨어 있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중요하다. (p.78)’ 고 이야기하신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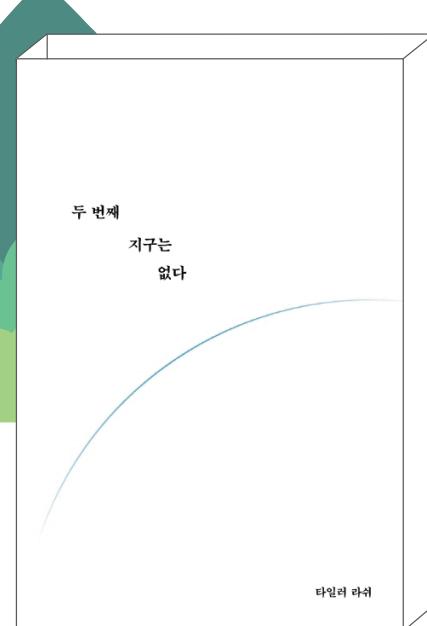


목입니다. ‘환경 문제는 너무 크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막막하니까 조금이라도 앞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것이며,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까워진 거라면 생각해 보는 것이다.’ 참으로 공감 갔던 부분이고 위로가 된 지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삶에서도 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랑스럽고 더욱 존경하게 타일러 아저씨, 도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읽는 순간 저에게 특명은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어쩌면 ‘행동하기’가 아닐까요?

‘1.75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린슈머가 되어라!’ 먼 훗날에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행복한 삶의 터전을 잘 지키고 가꿔서 그대로 물려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가 아니어도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타일러 아저씨의 말씀 덕분에 그린슈머가 되겠다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책이라는 공간 속에서 타일러 아저씨의 생각을 읽으며 내면의 대화를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살포시 싹트게 된 지구사랑에 대한 제 마음 성장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것도 기쁩니다. 타일러 아저씨, 고맙습니다. 오래도록 한국에 머물러 계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 그린슈머가 되고자 하는 어느 여학생 드림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어떤 책? 생태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인식을 갖게 하는 책!

많은 이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여러 책들에서도, 큰일이라고, 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이전대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아가며, 지구의 상태는 매일 급격하게 나빠지는 듯합니다.

<비정상회담>으로 잘 알려진 방송인 타일러 라쉬는 이 책에서 기후 위기의 문제가 그저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실천을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지구는 하나뿐이기 때문에’ 인류가 계속해서 지구에 빛을 진다면 선택지는 종말뿐이기 때문입니다. 타일러 라쉬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어?” “이건 정부 책임이니 정부가 알아서 해야지” 하는 생각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풍부한 자료들과 함께 타일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구에서의 삶을 위한 지금 당장의 첫 걸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윤주 수원 수일여중 교사/소설가

책 읽기를 좋아하던 여자아이는 여전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가끔 쓰기도 하며, 학생들과 함께 책을 읽는 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읽는 삶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도 또 생의 한 페이지를 책과 함께 열어갑니다.

Q. 저는 확신의 P형 인간인가

봅니다.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도 너무 어렵고, 목표 정수를 정했지만 자꾸만 실패하게 돼요. 이번엔 꼭 국어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자꾸만 실패하니 계획은 세워서 뭐하나 싶기도 하고.. 이번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 고1, P님

A. 마음먹은 대로, 애쓴 만큼

성과가 나온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 아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노력했기에 더 실망스럽고, 다시 시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속상함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하는 P님이 이번만큼은 꼭 목표를 성취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달성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목표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꾸만 실패하는 계획...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P님은 보통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나요? 저는 상담실에 온 친구들과 ‘목표와 계획’을 세울 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목표에 대한 질문

Q1. 현재 세운 목표는 최종 목표/ 중간목표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Q2. 목표는 현재 나의 상황(수준)을 고려해서 세웠나요?

계획에 대한 질문

Q1.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웠나요?

Q2. 계획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웠나요?

목표와 계획에 대한 질문은 현재 세워진 목표와 계획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같이 연습하는 마음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현재 102kg인 21살 대학생 B군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B군이 한 달 후의 목표를 <70kg으로 만들기>로 세우고, 계획을 <아침, 점심만 먹기/ 하루에 운동 3시간 하기>로 세웠다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에 대한 질문

Q1. 현재 목표는 최종 목표/ 중간목표 중 무엇에 해당하나요?

→ 최종 달성 몽무게니까 최종 목표.

Q2. 목표는 현재 나의 상황을 고려해서 세웠나요?

→ no. 한 달 만에 32kg을 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한 달이라면 10kg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듯.

계획에 대한 질문

Q1.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웠나요?

→ no. 언제, 무슨 운동을 할지 정하지 않음.

Q2. 계획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웠나요?

→ 반반. 쪼개서 운동하면 3시간은 가능할 것 같음.
그런데 저녁 아르바이트가 있어 저녁을 안 먹으면 일을 못 할 듯.

P님도 세운 목표와 계획을 두고, 위의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질문에 모두 YES를 외칠 수 없다면 아래의 3가지의 방법으로 다시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세요.

1. 목표를

**최종 목표와 중간목표로
나누어서 정하자.**



우리는 무수한 연습을 통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면 도달하기 전에 지쳐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목표를 세울 땐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 ‘최종 목표’와 최종 목표를 이루는 길의 스타터가 되는 ‘중간목표’를 나누어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몇 단계의 중간 목표를 성취하다 보면 멀게만 보였던 최종 목표에 금세 다다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2. 현재의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자.**



저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고 생각해요. 혹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계단 높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계단은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높이어야 넘어지지 않고, 신체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키를 고려해 높이를 정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현재 나의 상황과 수준에 맞는 적절한 난이도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성취되는 지나치게 쉬운 목표는 그 자리에 나를 안주하게 만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얻기 어려운 목표는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3. 계획은 구체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도록 세우자.**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냥’, ‘잘’은 목표를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인내심을 기르겠다’는 중간목표를 세웠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그만하고 싶을 때 그냥 참는다’, ‘참고 더 한다’라는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이 들어가게 세우는 것이 좋아요. ‘그만하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먹으면서 참는다’, ‘공부를 하다 그만두고 싶을 때 딱 10분만 더 한다’와 같은 것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가지 방법을 기억하며, 목표와 계획을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시각화하는 것을 추천해요. ‘시각화’를 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게 목표와 계획을 글로 기록해 놓는 것을 말해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 내가 쓰고 상상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려는 특성이 있어요. 목표를 달성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펜을 들어 써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메이저리거 야구선수인 오타니 쇼헤이의 계획표로 유명한 <만다라트 계획표>를 써보는 것을 추천해요.

제가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 결국 국어 1등급을 받았다는 P씨의 기본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만다라트 계획표

만다라트(Mandal-art)는 마쓰무라 아스오가 개발한 사고 기법인 ‘연꽃 기법’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이디어를 확산할 수 있도록 두뇌 활동을 극 대화하는 사고 및 학습 기법의 일종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기법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 1) 중앙에 있는 사각형의 가운데에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중간 목표를 적는다.
- 2) 8가지의 중간목표를 둘러싼 같은 색의 정사각형 중간에 옮겨 적는다.
- 3) 각 중간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8가지씩 작성한다.



장혜민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미디어치료상담실 상담사
청소년과 부모가 서로의 사랑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왜곡된 시선을 조정하는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청소년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다면, 교보교육재단 매거진 참사람 36.5°C로 연락주세요. 전문 상담사님의 따스하고도 섬세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고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상담 내용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신청방법] 교보교육재단 홈페이지(www.kbedu.or.kr) 접속
→ 상단 메뉴의 신청(온라인 신청) → 신청사업에서
'세대공감 토닥토닥 고민상담' 클릭 후 양식 작성 및 제출

가족애를 나누다： 2023년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여름캠프 현장 스케치

교보생명은 교보교육재단과 함께 지난 2003년부터 보육시설을 퇴소했거나 저소득 가정에서 자란 소외계층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희망다솜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새내기 대학생 20여 명을 선발해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별도의 성적우수장학금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멘토링, 진로 및 학업 정보 공유, 다양한 문화체험과 봉사활동을 제공하는 ‘장학생 캠프’를 매년 상하반기 개최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간은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어야만 했답니다. 드디어 4년 만에 장학생 여름캠프를 진행하였는데요. 지금부터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올해 희망다솜 장학생 증서 수여식&여름캠프는 지난 8월 24일 ~25일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도봉숲속마을에서 1박 2일 간 진행되었습니다. 재학생, 졸업생 등 무려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해주었는데요.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립준비청년 및 어려운 가정의 대학생들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며 “활발한 교류기회와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따스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이후에는 기수별 대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증서수여식 이후, 이사장님께서는 단상에 오르지 않은 100여 명의 학생들 한 명 한 명과도 눈을 맞추고 악수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증서수여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장학생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과 이름을 잘 모르는 코로나 기수들을 위해, 특별히 강사님을 초빙하여 팀 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팀원 간 힘을 합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어색함이 사라지고 조금씩 친해질 수 있었답니다.

특히, 올해는 폐지를 예술작품으로 제작하는 사회적 기업 ‘러블리페이퍼’의 기우진 대표 특강과 함께 업사이클링 소품을 만드

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장학생들은 항상 도움을 받았던 입장에서, 이번 캠프를 통해 폐지수거어르신을 비롯한 우리사회 의 소외계층에게 다시 마음을 전하는 나눔의 선순환을 경험하고 봉사정신을 북돋았답니다.

폐지 수거 어르신들이 모은 박스를 캔버스로 만들고, 다시 거기 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캘리그래피 문구를 정성껏 적은 후 말린 꽃잎으로 하나하나 곱게 장식했습니다. 장학생들이 따스한 마음을 담아 제작한 이 액자는, 손 편지와 함께 교보생명 임직원 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장학생들의 삶을 응원하고 학자금을 지원해준 교보에게 감사를 표하는 학생들의 깜짝 선물이랍니다. 첫째날의 공식 일정은 이렇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단 소식



다시 시작된 캠프 둘 째 날, 첫 공식 프로그램은 하반기 진행하게 될 장학생 지역별 봉사모임 계획, 그리고 발표였습니다. 서울, 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등 전국 총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 선후배 장학생과 함께 어떤 봉사활동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학생들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는데요, 플로깅부터 독거노인 찾아뵙기, 보육시설 아동 멘토링, 연탄 나르기, 유기견 보호 캠페인 등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봉사활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2024년도 새롭게 들어오게 될 제22기 희망다솜 신입 장학생 환영 영상을 모둠별로 촬영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21기 장학생들은 벌써 후배 기수를 맞이할 생각에 다들 설레었다는 후문! 그리고 대망의 '2023~24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생 임원단' 선발을 마지막으로, 1박 2일 간의 여름캠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희망다솜 장학생들, 추억을 쌓아올리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가족애'는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었습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앞으로도 희망다솜 친구들이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차게 응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 제7회 교보교육재단 「책갈피 : 책 속에서 나를 찾다」

청소년 독서편지 공모전

2023 책갈피 추천 인성도서 중 한 권을 읽고,
독서편지를 작성해 보내주세요!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청소년 시기에 훌륭한 책을 만나는 경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책갈피 : 책 속에서 나를 찾다」는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참다운 삶의 갈피를 찾고,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교보교육재단의 청소년 인성독서사업입니다. 진솔한 고백과 성찰이 담긴 편지쓰기 경험을 통해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이 한 뼘 더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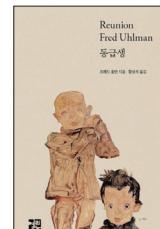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책갈피 추천 인성도서



바퀴 빌라의
여름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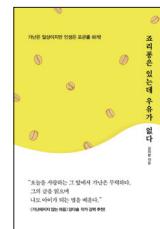
동급생



인어의 걸음마



달에서 아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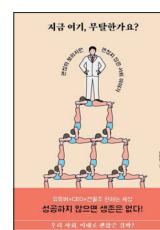
조리퐁은 있는데
우유가 없다



다르게 함께 살기:
인간과 동물



최소한의 심리학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



천 개의 파랑



스타피시



오늘의 민수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

2023년 제7회 청소년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안내

참가대상 전국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

참여방식 ‘2023 책갈피 추천 인성도서’ 중 1권을 읽고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독서편지 작성

- 편지 수신자(받는이) 및 해당 도서의 선정 이유
-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대목
- 책을 읽고 난 후 경험한 내적 변화

* 편지 수신자는 ‘저자’, ‘책 속의 인물’, ‘나 자신’, ‘책을 추천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 등 응모자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

작품분량 A4 용지 1장 이상

공모기간 2023년 10월 1일(일) 자정까지

시상내역 총 56명 / 총 시상금 800만원

구 분	인 원	시 상
대 상	1	각 교보문고 상품권 50만원
금 상	5	각 교보문고 상품권 30만원
은 상	10	각 교보문고 상품권 20만원
동 상	40	각 교보문고 상품권 10만원

※응모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